

막스베버와 마르크스. (프로테스탄스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멘봉박사

여러분도 xx위키에서 주장하듯 막스베버 우파 vs 마르크스 좌파라는 공식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 우파 막스베버의 주장을 알아보고자 많이 유명한 프로테스탄스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어보기로 했다.

결국 다 읽고 내가 내린 결론은, 막스베버는 빨갱이 새끼다.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이 주장했던 것처럼, 결국 자본주의가 옛 가치를 몰아내고, 효율과 생산성을 제 1가치로 두었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의 책을 읽은지 오래되서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으나, 대강적으로는 이리하다. 그 당시에는 계몽주의가 곧 산업혁명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설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막스 베버는 다르게 주장했다. 산업혁명과 금융혁명을 일으킨건, 계몽주의가 아니라 종교, 즉 프로테스탄스의 윤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중세, 즉 산업혁명 이전에는, 돈을 버는 것을 죄악시 했다. 즉 자본의 축적을 죄악시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의 금융업을 비난하고, 썩생이처럼 돈을 안쓰고 자본을 축적 하는 행위를 죄악시했다. 예를 들어 기사가 연회를 성대하게 열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연회를 열거나, 절약하는 행위를 매우 명예롭지 못하게 본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청도교도들이 나왔고, 칼뱅주의의 이중구원론, 즉 내가 구원받을 놈이면, 현생에서도 중히 쓰일 것이라는 말이, 상업계층의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옹호처럼 여겨졌고, 이러한 행위가 게으름은 죄,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건 종교적 구원받지 못할 놈이며, 이런 새끼랑 말도 섞으면 안된다는 논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더 절약해야 했다. 또한 더 열심히 투자해야했다. 즉, 가치관념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고,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지 못했으며, 서양에서만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게 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 러시아 제국과 아프리카 부족, 인도에서 나타난, 계몽주의 운동들이 왜 근본적인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주장했던 자본주의의 필요성과 일치해 보인다. 근본적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정말 필요한 단계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가치(도덕성, 신앙, 민족, 사랑, 신분, 혈통)등을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며, 이를 유물론적 가치만 남길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막스 베버 또한, 자본주의 정신은, 구 문화를 타파하고, 유물론적 가치를 우뚝세우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나는 해석했다.